東亞日報
朝刊
本紙夕刊合十二面

近衛新內閣의指導精神

革新諸政策實行에努力

形式的의發表는廻避

四大項目을閣議서決定

【東京電話】近衛內閣의 政綱政策은 七日의閣議에서 決定되엇는데 近衛首相으로서는 新內閣의 指導精神은 ... [illegible]

政綱政策에對하야 形式的의것을 發表치안코 專혀 革新諸政策의 實行에 努力키로하고 擧國一致로서 當할터이다

一、崇嚴한 國體에對한 觀念 卽 日本精神의 發揚顯現을 期할것
一、國內의 相剋對立을 緩和하고 擧國一致의 實을 擧하기爲하야 指導原理를 確立할것
一、現狀維持의 平和가아니오 國際正義에基하야 참으로 平和를 確立한다
一、社會正義에基한 諸般의 施設을 實行으로 옮기어 庶政의 革新을 行할것

施政根本方針下에

對特別議會策協議

◇特議後地方長官會議開催

【東京電話】政府는七日의閣議에서 ... [illegible]

政務官의設置問題 今週中決定

七日의閣議

特別議會會期 二週間以內로될듯

政綱政策의 發表를待望 ＝財界方面에서＝

天皇陛下 稻作御親裁

【東京電話】天皇陛下께옵서는 ... [illegible]

理想的內閣은아니나

積極的支援은不辭

特別議會無事突破는明白?

貴院研究會態度決定

【東京電話】貴族院研究會에서는 七日午後三時부터 ... [illegible]

近衛首相 十二日西下

廣田外相의 就任人事 各國大使를接見

社大黨十一氏 農村救濟策陳情

鮮滿鐵道一元化 最後案成立

우크라이나 黨大會 中央指導를論難

蘇聯騎兵越境

滿人農夫二名을拉去

外交部嚴重抗議

蘭印側代表 秩父丸으로訪日 ＝聲明書를發表＝

全中國에、五個의

鞏固한國防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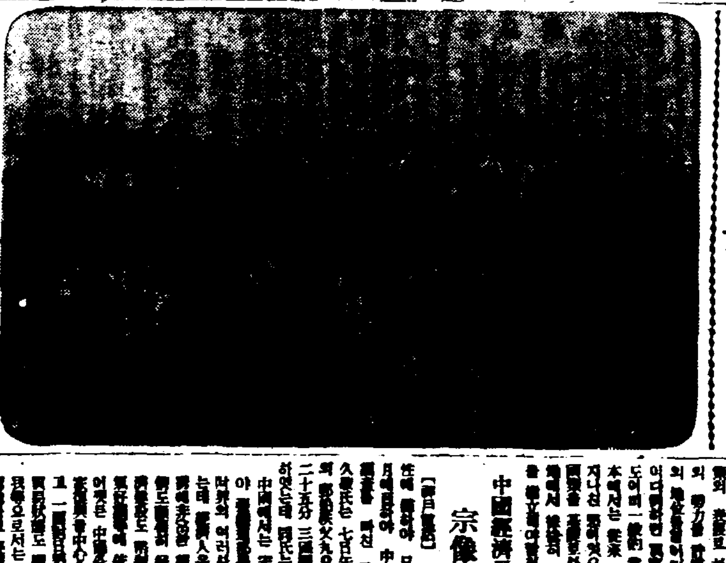
西北區域엔共軍配置

【上海電話】國民政府는 ... [illegible]

英國自動車 工業近狀

企劃廳總裁 廣田外相으로決定

◇汪清縣朝鮮觀察團



南總督의訓示

中樞院本會議席上

[illegible]

昭和十二年六月七日 朝鮮總督 南次郞

三浦滿口總領事 七日歸國

宗像氏歸國 中國經濟界調查後

東拓綿羊事業의 不良成績原因

滿洲產金 第三回買入額決定

日銀重役會에서

滿洲財政南氏歡迎

日銀의午餐會

楊虎城氏外遊

各地業務協議會

東亞一流好

纛島에 "都計" 實施

第二期區劃整理內定

西部漢江의鐵橋도實現하야 大京城의外延的發展을圖謀

경성부 공영과(工營課)에서는 방대한 시가지 계획(市街地計劃)에 의한 실시에 따라서 우선 五백萬원예산으로 영등포(永登浦) 돈암정(敦岩町) 아현(阿峴) 대현(大峴) 대흥(大興) 신촌정(新村町)一부의 구획정리(區劃整理)를 금년부터 착수하기로 되엇다함은 기보한바이어니와 이계획은 이미 실시설계(實施設計)까지 완료되어 총독부에 인가신청을 하엿으므로 인가가나오는대로 부에서는 관계지주(關係地主)에게 환지고시(換地告示)를 발하는동시에 공사를 착수할것이므로 구획정리 제一기사업은 이로써 끝날을 것이라 한다.

이 제一기 구획정리 공사 착수와동시에 부 도시계획계(府都市計劃係)에서는 제二기 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하게될것이라는데 제二기 구역은 대개 교외 경성 발전에잇어 중요한 지역(中間的地域)이될 동대문밖 청량리정(淸凉里町) 안암정(安岩町) 행당정(杏堂町) 마장정(馬場町) 제기정(祭基町) 사근정(沙斤町) 회기정(回基町) 휘경정(徽慶町)一대이며 서부에잇어서는 마포정(麻浦町) 현석정(玄石町) 신정정(新井町) 하중정(下中町) 수일정(水逸町) 서교정(西橋町) 동교정(東橋町) 당인정(唐人町) 합정정(合井町) 망원정(望遠町)一대가 되리라한다.

이 두곳을 제二기 구획정리구역으로 결정하게된 원인은 동부一대에 비약적발전이 잇을것이라는것을 짐작할 뿐아니오 또 현재 경성토목출장소(京城土木出張所)에서 공사중인 중랑천(中浪川)제방공사가 금년으로 끝나고도 불원한 장래에 완성될것이며 동부의 청계천(淸溪川) 개수공사도 금년부터 착수하게되어 동부 발전은 一층 극화하게되엇으므로 급속히 착수하게된것이라는바 아직 경성부행정구역(行政區域)에 편입되지안흔 뚝섬(纛島)도 경성도시계획에는 편입되엇으므로 아울러 구획정리를 하게되리라한다.

또 마포쪽은 영등포정의 구획정리와 대현정一대의 구획정리가 완성되고 또 현재 현석리까지 완성한 서부 한강연안의 제방공사

蠶室里로 橫斷할 鐵橋도計劃

總督府當局과折衷

경성부의 제二기 구획정리계획에대하여서는 벌서에 말한바어니와 부도시계획계에서는 이외에 새로운계획을 세우고잇다.

그것은 남산주회도로(南山周回道路)가 완성되면 부근의 보광정(普光町) 한강정(漢江町) 서빙고정(西氷庫町) 동빙고정(東氷庫町)一대의 발전은 자연히 이러날것이므로 이에따라 한강(漢江)을 중심한 교통방법은 자연히 대를보게될것이어서 한강에서 대안인 잠실리(蠶室里)에 미치는 철교를 가설하자는것이다. 이계획은 대안의 잠실리가 광주군의소속이므로 경성부 단독으로는 계획을할수없어 총독부와 협의하야 구체적계획을 세울터이라는데 이철교가 나타나면 한강의 교통방법은 대단 완화되리라한다.

佛兩島人歸國

【東京電話】 동경정주(東京駐在)의 불란서에서 상해한불구비행가 도레 미게렛지、양씨는 七일오후 九시반 동경역발 기차로 신호(神戶)에이르러 九일오전二시 신호출범으로 불란서에 도라간다고한다.

平壤名産品 阿弗利加로進出

【平壤】 평양은 상공도시(商工都市)로서 차차 그면목을 가추고잇어 평양의 특산품이 점차 해외를 목표로 진출하고잇는바 최근 아프리카(阿弗利加)로부터 평양의 명산품을 사드리겟다는 소식이 평양상공회의소(平壤商工會議所)에 도달되엇다. 편지를 보내인 상점은 아프리카서해안(西海岸)니게리아 라고스시(市)다부니상회인데 평양상공회의소에서는 평양의 명산품을 신중히 조사하야 회답할터이라 한다.

長白密林을根據로 國境線에出沒

【咸興】 장백현(長白縣)二十도구의밀림지대를 중심으로하야 작년봄부터 동서로 신출귀몰하며 약탈, 협박, 폭행을 감행하여오든 공비의 김일성(金日成)一파와 또 한편 최현(崔賢)一파와 합류한 약 三百명의 정예부대중 약百명은 수十년간 활약하여오든 평북대안의 밀림지대를 무대로하야 一대는 보천보(普天堡)를 습격하는동시 다른一대는 갑산군 보혜면 보전리(甲山郡普惠面保田里)로침입하야 二파로나누어 연四일밤 十一시반경 심야를 다서 습격하는동시 다른一대는 가지와의 전화선을 절단하고 우편소 면사무소 삼림보호구사무소 등에방화하는 一방 약百여호의 촌락을 포위하고 약탈을 마음대로 하다가 한시간만에 대안으로 도주한사건이 돌발하야 보천보촌락의 주민은 공포에 떨게한 소위 제二동흥사건(第二東興事件)을 이르키엇다.

六일 정오까지에 쌍방의전투로 경찰관七명이 전사하고 大명이 중상을 입게되엇고 보천보의 피해만 불원적으로 五만원의거액에 달하엿다.

그러면 그들공비군은 무슨목적으로 한편의평을 습격하게되엇으며 압록강연안의 제一선경비가 철통같이 엄중한데도 백여명의 대부대가 경계망을돌파코 압강을넘어 조선에들어온 경로는 대체 어떠케되엇던것인가?

그들공비는 최근에 이르러 장백현과 안도현(安圖縣)의 하늘도 보이지안는 밀림지대를 본거로하야 활동을 개시하게되엇는데 원래 그들은 평북대안을 중심으로 하야 만흔 활약을 하엿으나 토비공작(討匪工作)이 철저히 진행되어 오게되엇으므로 그곳에서 차차 쫏겨 밀려 들러온곳이 장백현과 안도현지방이엿다.

그리하야 김일성은 작년부터 비로소 활동을 하여오며 부하의 훈련 전법의연구등을 계획하여 오든 지금에 이르렀고 최현은 수十년이여 준비를 하여오든 자로 나이 五十을넘엇는데 김일성을 어리아히라믿은 취급을하고 잇는것으로보아 그와 상당한차이가잇다고한다. 어쨋던 최근에 이르러서 양두목이 서로 악수하야 통一한 보조를 취하여오는터인데 지난五月하순 최현一파 백수十명이 압록강으로부터 함남 갑산군을 거처 장백현 二十도구방면으로 건너간 일이잇어 그당시 [illegible] 헛되이 놓아가게하엿거니와 [illegible]

小雨만 오락 가락 渴望의喜雨는無望

蒼空打診 仁川觀測所發表

【仁川】 시우부족한 일기로 봄농사를 시작하는 이때 오지안코 부터옴만 계속하는데 이 일기는 인천관측소(仁川觀測所)의 창공타진에 의하면 북조선지방에잇든 저기압은 오호쓰크해로 빠저 버리고 다시 제주(濟州) 상해(上海)방면에 七五二미리의 저기압이생겨 동진중으로 금조六시현재로 제주 一二미리 부산(釜山) 목포(木浦) 대구(大邱)에 각각二미리의 강우를보엇을뿐으로 여전히 계속하야 시우부족한일기가 二三일간 계속될 터이라는데 강우는 그리 시원치안흘 모양으로 그저 소우가 오락가락 하며 강우를 갈망하는 농군의 가슴만 태울것이라 한다.

綠陰 욱어진 古宮 (어제 경회루에서)

城大를綜合大學으로

理工學部增設코一新

于先明春에理科四十名增募

경성제국대학에 이공학부(理工學部)를 증설하야 종합대학으로 면목을 一신하게되리라 한다. 조선의최고학부인 경성제국대학이 지금까지는 법문학부(法文學部)와 의학부(醫學部)가 잇슬뿐으로 농학부(農學部)와 공학부(工學部)를 증설하라는 요망이 치열하든중 명춘부터 예과(豫科)에 이과(理科)一급을 증설하야 四十명을 더모집하고 소화十六년도에는 이공학부가 실현될터이라 한다.

그리하야 이공학부는 기초(基礎)와 응용(應用)의 二파로 나누워가지고 기초(基礎)는 주로 물리화학을 중심으로한 자연과학의 순리(純理)를 연구하는 각종의 이과를 포섭하야 자연과학의 리론적지도자를 양성하고 응용(應用)은 주로 이공(理工)의 기초적지식을 응용하고 전기(電氣) 광산(鑛山) 응용화학등으로 공과(工科)의 기술가를 양성케될것이다. 이로써 공업조선의발전에잇어서 생산력(生産力)의 확충을 전규하는 현상에잇어서 중대하의 전도는 크게 기대되는바잇다.

뽀-트顚覆으로 四名이溺水

巡査部長一名은溺死

【京城】 七일오후五시반경 부내 흑석정(黑石町) 앞 한강에서는 四명이 탄 『모타뽀트』가 전복되어 三명은 살아나고 一명은 익사하엿다. 부내 한강정(漢江町) 주재소순사부장 황의섭(黃義燮)(二七) 보광정 유지 이재환(李載煥)(三二) 보광정(普光町) 부동대장 장영환(張英煥)(二一) 남대문통(南大門通)二정목에잇는 외교원 一명이 七일오후에 서빙고(西氷庫)앞 한강에서 한남정 강대석(姜大錫)소유인『모타뽀트』를 타고 흑석정방면을 향하야 달리다가 연『카소린』이 [illegible] 뽀트는 전복되엇다한다. 그리하야 행히 三명은 살아나고 순사부장 황의섭만은 행방불명이 되엇으므로 소관 한남정주재소원은 용산서의 응원을 어더가지고 즉시 시체수색에 착수하엿다는데 밤이늦도록 시체는 발견치못하엿다한다.

鍍金반지로 詐欺行脚타被捉

[illegible]

京城球場에 展開될 籠球朝鮮의豪華版

超弩級"五팀"의激戰이期待

今日籠球選手權大會

조선농구협회(朝鮮籠球協會)주최 본사후원의 제七회 전조선농구선수권대회(全朝鮮籠球選手權大會)는 드디어 금八일(오후三시반부터) 개막하게 되엇는데 선수권을 획득하고저 벌서부터 묘기를연마하여 온 눅구계의 초뢰인 보전(普專) 연전(延專) 중등교 농구의 우승팀인 중동(中東)과 신진의 배재(培材)로 사회단체로서 가장 맹장인 고려(高麗)의 五팀이 참가한만큼 통일 구장에는 불꽃이 나는 장렬한 격전과 관중의 찬탄을 마지안케할『클리어』한 묘기가 전개될것이어서 벌서 부터 인기가 비등하다.

추첨결과는 가보와같이 제一회전에는 배재(培材)대 고려(高麗)、중동(中東)대 연전(延專) 제二회전에는 배재대 고려의 승자(勝者)와 보전(普專)이며 이의 승자와 중동대연전의 승자가 결승에 들어가게 될것으로서 실력백중한 五팀중 어느팀에 우승의 여신(女神)이 웃을가는 예측키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중에 특히흥미를 끄을 게임은 중동(中東)대연전(延專)으로 중등우승을 보힌 중동과 일본 농구의 패권을 가진 조대(早大)를 물리친 연전과의일전과 또 만일 연전과 보전이 최후까지 남는다면 가、또는 조대(早大)를 이긴연전이 조대에게 패한 보전에게 설욕하게 될것인가는 여간 흥미가 잇는것이 아닐까한다. 九일의 결승전은 참으로『팬』을 열광시키고말 큰 게임이될것이다. [illegible]

醫學界의驚異!

電流로呼吸하는"鐵肺"

米國千萬長者、北平서得病

歸鄕旅費만五十五萬圓

세계 의학계에 폭탄적경이(驚異)를 던진『부쇠페(鐵肺)』를 가진사내가 북평(北平)으로부터 향리『시카고』로 돌아가는길에 四일오전三시반 상해(上海)에 도착하야『센세이순』을 일으키고 잇다.

그는 작년一월 영화의 일본을 구경하고저 미국을 떠낫던『시카고』의 천만장자『프레데리·삐·스나이드』군으로서 목적의 일본을 눈앞에 둔채 북평에서 세계기병(奇病) 소아마비병(小兒麻痺病)에 걸려 전신마비로 인하야 호흡을 할수없게 되엇다. 그래서 동군은 북평협화(協和)의원에 우연히 장치된 동양유一의『하-버드·대학』제『드링커』박사의 발명인『부쇠페』로 생명을 이을수 잇게되어 그후로는 직경三十『센치』、길이 七『피-트』、무게 一千『폰드』의 굉장한 그쇠의 원통(圓筒)에 몸만내어노코 누은채 일동

이『부쇠페』는 내부는 일종의 진공으로 구멍이 여섯、그안은 해면(海綿)과 고무로 공기침입을 막고 호흡은 전기『폼프』의 작용 一분간 十五회로 신진대사를하고 전류가 一분이라도 끊어지면 병인은 죽고 만다.

하여튼 동군의『시카고』에의 여행은 총세二十三명으로 북평으로부터는 七량(輛)의 열차를 대절하엿는데 다시 五일 상해출범의『프레시덴트·그-리퍼』호에서 큰 一행이 쓰게 된다.『부쇠페』가 움직이면 곤란하므로 특히 움직이지 안는 장치를하엿다. 일행의 여비는 작으만치 十八만불(약五十五만원)이라는 호화스로우나 또 일방 슬픈 부호의 여행인데 과연『시카고』까지 무사히 도착할수 잇을는지 퍽 흥미잇다.

解渴의淸凉一飮 天然氷은品貴!

今年은人造氷時代

예년보다 좀 일찍 더위는 측후소(測候所) 한란계(寒暖計)가 벌서 三十二도를 육박하엿으니 거리의 온도는 三十五、六도를 넘어서『아스팔트』가 다녹아버릴 형편이고 성급한 도시사람들은 벌서『노타이』가 유행한다.

이때를 만난것은 온갖 청량음료수(淸凉飮料水)와 어름(氷)장수뿐이라할가『아이스크림』、『아이스케키』의 황금시대다 그러면 금년 어름시세는 어떠한가? 작년겨울에는 한강채빙(採氷)을 금지하엿기 때문에 금년은 천연빙(天然氷)은 얻어볼수없고 모두 인조빙(人造氷)인데 제빙회사(製氷會社)의 소매가격(小賣價格)은 한관에 八전내지十전이라 하니 작년에비하야 별변동은 없고 먹으면 도리혀 딴딴 더단하다되 천연빙은 위생상조치못하다하야 그채취를 금하엿으니 인조빙의 안전은 보장하여야 할것이라하고 청량음료수의 중요한 하나인『사이다』는 한타(打)에 一원三十전이라하니 도시사람들은 시원한 물한목음먹어도 어떠기도어렵다고할가?

遊廓에 黑字洪水

月收入十二萬圓也!

娼妓의한숨파눈물로번돈에 抱主들이含哺鼓腹

작금 각종 관공서 은행 회사가 모다 적자(赤字)라고 비명을 울리는판인데 홀로 유곽(遊廓)만은 흑자(黑字)의홍수에 허덕이고잇다。부내에서도 가장 유곽(遊廓)이 만흔 본정경찰서관내의 통계에 의하면 동서관내 유곽百六개소의 매월평균 수입은 十二萬원이라하며 지난六일 하로밤만의 총수입이 三千九百七十여원이라한다.

孔德町火災

草家一戶全半燒

七일 오후三시 五十분 부내 공덕정(孔德町)三二三번지 한광명(韓光明)의집에 불이 나서 삼시간에 한씨의 초가집을 전소시키고 이웃집 김동수(金東秀)의집까지 반소시킨후 아현소방대의 진화되엇다 손해는 약一千여원이며 다행히 인축의사상은없엇다. 화인은 방금조사중 이라한다.

그날그날

(陽)六月八日(火曜) (陰)四月三十日(丙寅)

日出前五、一一 日入後七、五三

月出前四、一九 月入後七、二八

滿潮 [illegible] 前七、四五 後九、〇〇

仁川 前四、二五 後四、二〇

鎭南浦 前八、四〇 後九、〇〇

오늘의天氣

흐리고비올경향

運動과競技

庭球聯盟戰에 普專優勝

專門學生軟式庭球聯盟主催 三回對校庭球戰은 一部 二部로 나누어서 열전을 거듭한바 一部에서는 普專이第一位이엇고 二部에서는 延專이第一位에 據하야 兩校가다시 優勝戰을 行하라든것이 延專이 棄權하엿으므로 普專이優勝하엿다.

滿洲卓球 京城軍得勝

京城軍招聘 對全京城東洲卓球는 六日午後七時부터 朝鮮日報社 講堂에서 擧行、京城軍은 奮鬪하야 滿洲軍 淸水의 優勝으로 因하야 六日은 深更午前零時半까지 激戰되엇든데 結局 7—5로 滿洲軍敗하엿다.

第一라운드 (京城軍) (滿洲軍)

[illegible] 3—0 海野

金相燮(專賣)3—0 興梁(吉林)

高俸鉉(普成)2—3 太田(滿鐵)

朴鍾植(城東)3—0 富田(滿鐵)

李成鎔(總府)0—3 淸水(安東)

閔興洪(普成)3—2 興田(滿鐵)

朴在鐘(本城)1—3 土村(同)

第二라운드

崔 3—0 大田

金 1—3 淸水

早大排球一勝一敗

早大對遞信排球第二回戰은 午後四時十五分부터 眞玉、中野兩氏審判下에 擧行、結局 2—0으로 早大勝하엿다.

又早大對殖銀排球第二回戰은 六日午後二時半부터 [illegible] 코-트에서 比嘉、稻田兩氏審判下에擧行、結局 2—1로 殖銀勝하엿다.

早大再勝 對慶應二回戰

東京大學리-그 早慶第二回戰은 七日午後二時부터 神宮球場에서 擧行 [illegible] 九回에 이르러 [illegible] 早大再勝하엿다.

一高 徽文

中等學校籠球리-그 一高對徽文은 七日午後五時 京籠코-트에서 擧行 [illegible]

遞信雪辱 對鐵道二回戰

京城實業野球리-그 遞信對鐵道二回戰은 六日午後一時半부터 [illegible]

殖銀連勝 對府廳戰

[illegible]

籠球리-그

日本籠球協會朝鮮支部主催 中等學校籠球리-그戰은 六日午後一時부터 京籠코-트에서 擧行되엇는데 [illegible]

東星商業28—18仁川商業

第一高普24—12第二高普

大東商業28—6仁川商業

對徽文蹴球 東亞四快勝

[illegible]

仁川스포-츠

[illegible]

中等武道

[illegible]

今日運動

一、全朝鮮籠球選手權大會 [illegible]

一、男子中等學校 [illegible]

培材運動會 五十二周記念

培材高等普通學校에서는 創立五十二周年 記念大運動會를 明八日午前八時부터 同校運動場에서 擧行한다고.

今日 第七回 全朝鮮籠球選手權大會

一場所 京城運動場

一入場料 普通 卅錢 學生 十錢

主催 朝鮮籠球協會 後援 東亞日報社

第六回 全朝鮮男女中等學校懸賞音樂

規定

▲本大會는 男女中等學校學生 又는 其卒業生에게 本校에서 特定한 賞狀及 賞品을 授與함

▲懸賞演奏種目은 如左함

(가) 피아노 每校三人以內 (나) 바이올린 每校三人以內 (다) 聲樂 每校三人以內 (ㄱ) 女聲獨唱 每校三人以內 (ㄴ) 男聲 每校三人以內 (라) 合唱 每校一團人員二十名以內 (마) 管樂每校一團人員二十名以內 (바) 管絃樂每校一團人員二十名以內

▲每種目에 出演志願者가 四人以上 又는 四團以上이되는時에는 豫選會를 열기로함

▲決選公演會는 六月十九日(土) 下午八時 京城府民館에서 擧行함

▲「피아노」「바이올린」「聲樂」部 出演者는 必히 三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主催者側에서 指定하고 其他 一曲은 自由選擇하기로함

▲合唱 管樂又는 管絃樂은 一曲만 自由選擇하되 指揮者의 作曲은 使用치아니함을要함

▲主催者側에서 指定하는 曲目은 演奏會日로부터 二個月以前에 發表함

▲今回指定曲目은 如左함 (가) 피아노 [illegible] 奏鳴曲作品六十五番 (다) 바이올린協奏曲 [illegible] 作 (다) 女聲 [illegible]

▲審判은 「피아노」「바이올린」「聲樂」「合唱」「管樂」「管絃樂」의 六部로 分하야 本校에서 指定한 [illegible]

▲審判의 標準은 曲調와 [illegible] 不問하고 [illegible]

▲피아노 바이올린 聲樂部는 一等 二等 三等까지 合唱 管樂 管絃樂部는 一等 二等에게만 賞을 授與함

▲本規定에 記載치아니한 事項은 一切慣例와 審判委員會의 決定에 依함

【注意】

一、獨唱及 合唱의 歌詞는 參加申請書에 添付할것

一、公演順序及 時間의 排定은 本校에서 決定하야 新聞紙上에 發表함

一、大會參加에 必要한 一切費用은 各自의 負擔으로함

【時日】 六月十九日(土)午後八時 【場所】 京城府民館

主催 延禧專門學校 後援 本社學藝部

ClibPDF - www.fastio.com

社說

賀屋新藏相의 物價對策如何

一

昨秋以來 [illegible] 物價는 今春 [illegible] 그[illegible] [illegible]

二

[illegible]의 [illegible] 보건대 今後의 財政[illegible] [illegible] 生産力[illegible] [illegible] 主義하는 [illegible] 根本도 여기에있음을 力說한다.

그러나 우리는 新藏相의 物價對策에 對하야 [illegible] 느끼지안는다. 以上에 列擧한 物價[illegible] 對策은 [illegible] 어떠타한 效果도 내지못할것을 그대로 [illegible]하는것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物價의 [illegible] 것이 [illegible] 그方面의 資本[illegible] 아 公債消化를 [illegible] 物價[illegible] 必要가 없는것이매 [illegible] 이 [illegible]가 由來한根本原因을 [illegible] 財政[illegible] 서도 [illegible] 일이라 하겟지마는 [illegible] 物價問題를 [illegible] 이 [illegible] 云云함은 거이 不可能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illegible] 이點을 [illegible] 않은것은 아니어서 [illegible] 是非에 不過한것이다.

三

다음에 生産力을 擴充하고 物價[illegible] 調節하야 써 物價對策에 되게 하는것도 그效果는 [illegible] 도리어 그[illegible] 나타나지 않을가 생각된다. 生産力의 不足과 物價[illegible] 明白한 事實이나 그것은 [illegible] 生産力과의 사이에 [illegible] 생긴 結果이매 이點을 [illegible] 하지않고 生産力擴充만을 企圖하고 [illegible] 根本的으로 物價[illegible] 어도 그것은 [illegible] 다. 더욱이 現下의 生産力擴充은 그것이 [illegible] 없는 [illegible] 그때문에 [illegible] 民衆生活上 [illegible] 物價를 [illegible] 그들의 生活을 [illegible]

冬暖과 適雨로—
今年麥作은 大豐
三百六十五萬石增收豫想

昭和十一年의 麥作[illegible] 萬石(三割五分一厘)의 增收가 [illegible] 七石, 即 六月一日現在의 收穫豫想高 [illegible] 七萬三千六百十九石, 八十二萬五百五十九石(四割一分八厘), 中國小麥 五萬三百四十六石(二十一割六分三厘), 合計三百六十四萬九千八百石(三割五分一厘)의 增收다

麥作付反別及收穫高累年表

	大麥	小麥	裸麥	支那小麥	計
昭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一年實收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上步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註) 昭和十年以前은 支那小麥의 調査가 없음

近來의— 各國建築狀況

×

日本의 [illegible] 市街地[illegible] 二部市와 그隣接町村의 [illegible] 의 [illegible] 開始, 이미 一九三六年十月分부터 [illegible] 하고있다 [illegible]에 不外하다

日本의 建築統計는 市街地建築物法에依한 [illegible] 工事[illegible] 用途別 及都市別로 發表하고있다 그러나 이에關한 各國의 統計는 [illegible]

[illegible] 그러나 各國의 建築活動이 [illegible] 어느點에서는 같은것으로서 [illegible]

×

이제 一九二九年을 基準으로하야 最近 國際聯盟에서 [illegible] 英國, 米國, [illegible] 特히 英國의 建築活動이 [illegible] 前에 比하야 六割이나 [illegible]

世界建築指數

	米國 (二十五都市) 建築契約床面積	카나다 (六大都市) 建築許可價格	佛國 (巴里) 建築許可 床面積(住宅)	獨逸 (百十六都市) 建築許可數
一九二九年	100.0	100.0	100.0	100.0
一九三〇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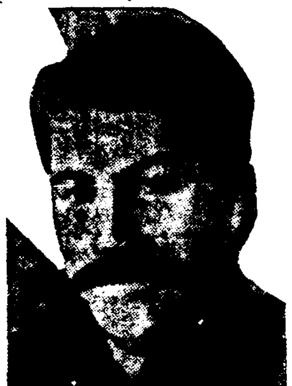
	[illegible]	英國 (146都市) 建築許可價格	蘭 (十都市)	中國 (六都市) 建築許可
一九二九年	100.0	100.0	100.0	100.0
一九三〇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口二萬以上의都會 ※一九二九年=基準一〇〇(但獨逸는一九三二年=一〇〇)

反革命派彈壓을 徹底的으로斷行
七月一日까지의 掃蕩完了할方針
蘇聯스탈린淸黨工作

【伯林七日發同盟】 蘇聯邦當局은 스탈린氏는 合同本部事件以來 트로츠키派反革命分子의 淸黨에 熱心인바 七月一日까지에 外國人 關係 反對派의 掃蕩을 完了할 方針下에 [illegible] 活動을 [illegible]하고 [illegible] 作의 [illegible] 次長 카마르니크氏는 自殺, [illegible] 化學工業副長 [illegible] 되고 또 [illegible] 키元帥 [illegible] 또 外務人民委員部는 外國人 [illegible]

[illegible] 카마르니크氏의 [illegible] 트로츠키派 [illegible] 反革命工作의 [illegible] [illegible]



(寫眞은 스탈린氏)

原料自給政策
히틀러總統力說
新四個年計劃의 內容

나치스革命四週年記念과 第三國黨大會를 [illegible] 昨年九月九日부터 十四日까지 一週日間 古都 뉴른베르크에서 開催되었다 히틀러總統은 이大會를 「名譽의 黨大會」라고 命名하고 九日에는 [illegible] 壇上에 올라서서 이 演說을 하였는데 이 演說은 [illegible]

就中 二個의 點이 世界의 耳目을 [illegible] 緊張시켰다. 그하나는 [illegible] 의 攻擊이며 또하나는 第二次 四個年計劃의 發表이었다 이 두가지는 [illegible] 모두 [illegible] 이나 特히 原料自給四個年計劃은 나치스從來의 政策과 그[illegible] 에 留意하면 [illegible]

노벨賞問題로 獨諾兩國間葛藤
囚人오시엣스키에게 平和賞授與가그發端

(寫眞은 問題의 囚人 오시엣스키氏(上)와 [illegible] 外相 라마스氏)

一九三七年度 노벨平和賞은 世界中 가장 [illegible] 獨逸의 [illegible] 외[illegible] 外相인 [illegible] 라마스氏이고 [illegible] 이제 [illegible] 이 두사람의 [illegible] 도 [illegible] 하기 [illegible] 長官이 아전[illegible] 이는 [illegible] 前에는 라마스外相이 [illegible]

[illegible]

中外短信

米國月給쟁이 封套點檢

米國 財務省을 [illegible] 最近 米國에서 高率의 [illegible] 人士의 [illegible]

無名의 高給者

메이·웨스트

[illegible]

新聞界에 허스트

出版界에서는 [illegible] 허스트 [illegible]

其他各界人士

[illegible]

中繼放送

最近中國— 經濟界의 動向 (一)

宋子文

幣制와金融

昨年

[illegible]

爲替

[illegible]

現銀

[illegible]

三行

[illegible]

[illegible]

戰術도 가지가지

[illegible]

南部版

地方論壇
第二公普校位置問題
水原 一記者

第二公普校의 設立의 必要와 그 方法등은 本欄에 再三 論議하엿스므로 再論할 必要가 업거니와 이가 實現에 際하여 [illegible]

가까운 오날에 이르기까지에는 市民全體의 要求가 더욱이 入學難 [illegible] 百은 넘지에 官民이 協力하여 [illegible] 第二公普校의 設立을 前提로 現在 水原公普校에 [illegible]

나 位置選定이 問題이어서 [illegible] 市民들의 主張과 門外市民들의 主張이 對立되어잇슬뿐 아니라 [illegible]

로 門外市民들은 門外를 中心으로 位置를 爭奪하고저하나 [illegible]

移秧期를앞두고
全南小作爭議激增
今年一月부터 五月末까지
一千三百二十七件

【光州】 소작쟁의가 만키로 유명한 전남지방에서는 이앙기를앞두고서 소작쟁의가 성행된다는 사실은 전남도내에서는 농지령실시 이후로 소작조정위원이 년년히증가된다고한 본지에 누보하엿거니와 금년 一월이래로 五월말일 까지에 제기된 소작 조정원은 一천 三백二十七건 이라는바 이것을 작년 一년동안의 一천 一백 四十七건에 비하야보면 실로 一백 八十五의 격증을 시하엿다는데 종래에 도내에서도 소작쟁의가 만키로 유명하엿던 광주(光州) 나주(羅州) 순천(順天) 보성(寶城) 등 지금 선년에 비하야 상당한 수사가 증가되엿으며 기타 一반이 증가되엿다는데 이제 그조정원의 이유별로보면 여좌하다고 한다.

小作料殘額	一〇件
土地返還	五八件
防害排除	七件
小作料交割	八件
小作權確認	一二四四件
計	一三二七件

自殺事件臨檢中
鐵道工夫가殉職
線路를監視하다가

【馬山】 지난 七일에 마산에서 [illegible] 철도국 [illegible]

당지 경찰서(警察署)에서는 당지 공의(公醫)와함께 현장을 림검하고잇엇는데 근래마산에서는드문사건인만치일반구경군이많이 모혀서 대혼잡을 일우엇는데 철도선로(鐵道線路)에서 혼잡을 일우면 선로에 고장이 생기므로 구경군을 감독하기위하여 당지 부마산역소속(驛北馬山驛所屬) 공부(工夫)를 출동시켯는데 모여든 군중을 감독하기에 열중되어 당일오전 여덟시四十八분 마산발 진주행(晋州行)렬차가 오는것을 못보앗기때문에 무참히도 그렵차에 갈녀죽엇다 한다

그는 당지 부외표방동(府外表坊洞)에 거주하는 허소도(許小度)(■)라는데 소화六(년도부터 당지 부마산 역소속 공부로 종사하여 그럭까지 모범공부로써 종 [illegible]

▽…綠陰方濃한 廣寒樓와烏鵲橋

慶南에千百餘의工場
職工總數는 七萬六千七百餘名
工業都市로躍進!

【釜山】 경남도 보안과에서 도내에잇는 각종공장의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압어보면 五인이상 사용공장수 一천백 一공장, 직공총수 七만六천六백八십七인이라고한다.

五人以上五百人未滿工場、職工一萬八千六百廿六人▲十人以上一百卅一工場一萬六千三十人▲二十人以上百卅五工場一萬四千四百四十九人▲三十人以上百十工場一萬四千二百七十人▲五十人以上一萬二千八百人

나살되엿으므로 전업의결의에 따라서 일간헌금만 입수되면 곧 두단체로 나노어주리라는데 이돈을 받게된 전기화산학원은 이것을기본삼아 앞으로 몽표사한채를신축할 예정이라하며 안동제이보교기성회에서는 역시 이돈으로부족한 신축될 제이보교설립비에 충당하야 모든을 어떻게 쓰리라고한다.

安東靑年會館
基地代金으로 兩學校에寄附

【安東】 오랫동안 황폐한 상태에 잇어서 그처리여하가 자못문제되든 전안동청년회관(安東靑年會館)부지(敷地)처분에대하야 두어달전 몽회의정간부(幹部)전영형(權寧洞)씨외 제씨가 누사회합하야 난상토의하바 잇엇는데 결국부지를 매가하야 모든비용을 덜고 그잔금을 안동화산하원(花山學院)과 안동제이보교 기성회(第二普校期成會)의 두단체에반분씨 기부키로 결정되여 몇몇전 편기화산하원에서 총부지를 공매한결과시가의 전부 ■■■■■에

槐山春蠶共販

충북 괴산군 농회(槐山郡農會)에서는 좌기 시일장소에서 춘잠견공동판매를 하리라는데 작년의 풍수해로 인하야 하천연안의 상전피해실로 매수가 二백매가 감소되엿다하며 그출회예상고도 불과 九천백관을 예상한다고한다. 時日八日부터上旬、延豊永豐面 十二日부터槐山、靑川、曾坪、各乾繭場

松隅街路上에
男女의爭鬪劇

【松隅】 五일오후三시경에 송우시장북판 주재소정면건(前)所正門前)에서는 청춘남녀의 쟁투극이 연출되엇엇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들건데 사건의 주인공인 포천군서면 어룡리(抱川郡西面於龍里) 서왕호(徐光虎)(■■) (假名)은 그의처되는 이야주(李夜珠)(■■)(假名)가 자기친모소상이 大일이제미공유의 풍수해에 봉상가상

榮州金氏門中에서
배곱하헤매는
貧農에게同情

【榮州】 작년의 대수재로 말미암아집일코 농지(農地)일흔 경북영주궁민은 이래一년동안에 간신히 지내왓으나 벌서 부황자(浮黃者)가 속출하야 술찌게(酒糟)한말로 십여일씩 연명하고잇으므로 당정의 농번기(農繁期)에서 노동의 능률이 나지아니하게되엿다. 이를본 봉화김씨문중(金氏門中)

에서는 김모(金■)씨기참판(金■)씨등의 발기로서 외엄금을 어더 一천四十七원으로 즉시만주속(滿洲粟)五백八十五승을 사서 궁민六十六호 인구三백十五명에 배부하엿다.

그러데 외연금을 내사람의씨명은 [illegible]

開城藥組運動

【開城】 바야흐로 목름이 지터가는 지난六는 성행중이라 한다.

이에서 열리엇는데 오전十시 각상점의 잡이잇는 가장중앙이 시내를 一주하야 운동장에 도착되자 대회장 임영식(任英植)씨의 개회사로 정중한 선수입장식이엇은후 경기는 백미(百米) 경주로 부터 시작하야 五十여종의 자미잇는 경기종목을 무사히 끝마친 후 오후四시경에 폐회하엿는데 당일은 일요일인데다 각상점의 공휴일이되여 구경군은 인파만경을 일우엇섯고 중요한 입상자는 다음과갈다.

優勝旗	小林商店
一等	孫泰慶
二等	北本町
三等	高麗蔘館

飛降重傷
돈벌속에서

【光州】 질주하는 기차에서 뛰여내리다가 중상한 주소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이잇다 지난 四일오후十시반 호남선 열차가 사거리(四街里) 정읍(井邑)간을 질주하고잇는데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長城郡北二面院德里)에 렬차에서 뛰여내리다가 머리를 중상하엿으므로 즉시 장성의원에서 치료중이나 생명이 보이는 현재 [illegible]

家屋賣買盛行이나
順天에도借家亂
貸借는아주막히어

【順天】 전남중심의 대도회가 될 목표로 약진하는 순천은 고등보통학교설립기부금문제로 순천군내에 거주하든 재산가들이 다른고을로 이주하는사람들이 적지 안흔 반면에 다른곳에서 들어 오는 부호들도 오기를 주저하고 잇엇다. 그러나 최근 고김종의(故金鍾翊)씨의 유지(遺志)를 히사하엿으므로 순천고보 전남(順天高普)설립허가가 되여 기부금은 일체해소가 될뿐아니라 순천고보는 명년 四월에 개교는 틀림없으리라는 전제하에 서 각처에서 들어오려는 재산가 상업자들이 모여들므로 주택난이 나 점포를 빌리기는 극히 어려워서 새로 들어온 관공리와 중소계급들은 주택난으로 대곤난중이라한다.

이반면에 가옥과 시가지매매는 성행중이라 한다.

府昇格을앞두고
晋州市區大擴張
經費로九十三萬圓

【晋州】 경남의 중요도시 진주는 부(府)승격을 앞두고 [illegible] 약진을 하는 진주의 도시계획을 전제로 결정하는 대로 도부터 五개년계획으로 강선도로 보조 [illegible] 九十三만원으로 도로개수(道路改修) 준비중 [illegible]

稅金過重으로
未納者二百餘名
水原邑當局도頭痛

【水原】 수원읍(水原邑)에는 호세부가자수가 전부 三천三백七十六호인바 지난 五월三十一일 납부기한까지 미납자가 二백四十二명으로서 도세(道稅) 二백二十원二十四전 읍세(邑稅) 五백六十三원 [illegible]

舒川地方麥作
稀有의大豊

【舒川】 충남 서천(舒川)지방은 작년도의 가진재해로 일반 세농민들의 생활상태가 그야말로 처참하기 짝이없는데 그들의 유一한 식량인 맥작은 금년에 일기가 순조로워 근년에 보기드문 예상이상의 풍작으로 일반세궁민들은 기뻐하여 마지아니한다고 한다.

馬頭寬氏喜捨

【釜山】 경북 선산군 선산면 완전동(善山郡善山面莞田洞)마호관(馬頭寬)씨는 원래부터 빈민구제에는용정을 갖고오든중 지난五월이 회갑인데 「회갑잔치」에 쓸비용을 쓰지안코 선산면내에 거주하는 빈민三백八십五호에대한 소화십 년一기호세一백八십四원八십전이라는 금액을 대납하엿다한다.

新坡市民
脚戱秋韆大會

【新坡】 신갈파 시민주최 본보신갈파지국후원으로 오는 단오가절을 기하야 각희(脚戱) 추천(秋韆)대회를 압록강변 사리장에서 개최하기로되어 방금 준비에 분망중인데 대회역원과 부서는다음과갈다.

十三日晩 ■ 十四、五兩日 會長金在璜、金允鎭 施■係朴享進外四人 會計係■■外三人 記錄係■■外一人 ■■係■■外一人 衛生係金■■外一人 ■■係■■外七人 幹事■■三外二十一人 散

書評

【水原】 水原邑本町 二二一自七番地 李昌歌氏는 無線兒童敎育機關의 하나인 三一男學校에 지난五日 蓄音機一臺(■■用)「라디오」一臺를 寄贈하엿다.

밥대신山菜
每日四百名入山
昨年風水害餘波

【楊平】 경북 봉화군(奉化郡)명호면 (明湖面)일대는 작년여름 풍수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illegible] 산(小白山)이 깊은 삼림이 잇어 [illegible] 라면산으로서 유명할 뿐만아니라 [illegible]

온 일대산의 (金泉) 대구(大邱)등지에 가 치지제철이되면 상당한 수출을 보히는중 특히 해마다 나풀이 남때면 보리고개를 앞둔 一반농촌에서 춘궁에 주린때를 [illegible] 자임때이므로 어제나 들려드는 나물군으로서 一종의 기현상을 나타내이고잇엇는데 금년에는더욱이 작년풍수해의 참혹한 여파로 밥미압어구도의 곤핍을 당하고잇는 一반세궁민들은 잘요을 으로나마 목숨을 잇게되엿다 ■■로여겨지난 五월중순경부터 날마다 산으로 나물하러 [illegible] 군이 작으만치도 四백명씩을 초과한다는데 [illegible] 어오는 부근 二三十리안팎과 [illegible]

金堤、扶安兩郡에
免稅地五萬坪
면세액 一萬一千百三十六圓
風水害稻熱病으로

【金堤】 작년여름동안의폭풍우로인하야 전조선각지의 농작물에 박대한 피해를 당하고 잇음으로 추수의 가을은 문자그대로 추수(秋收)의가을이되고말엇든것이다 으로 충해까지잇서서 재해가무심한 전북김제(金堤) 세무서(稅務署)관내인 부안(扶安)군의 수확도 개무지의 면적과 면세된 세액(稅額)을조사한바에 의하면 재해지총면적 五백八十五만 五천五백八十七평에 면세액은 一만一천一백三十六원五十一전에 달하야 작년은 九만五천원이엿는데 작년풍수해로 三만원가량은 감소가되리라한다.

奇緣(二)

모임을 오후엿다. 전날밤에는 [illegible] 오늘은 맑은 천기에 또 기온이 더오를 봄의 [illegible] 파연 그에보는 어그러짐이 없이 따스해졌엇다. 여러날을두고 흐리며 쌀쌀하든일기가 씻은듯이 개이고 따스해졋다. 그래서인지 마치 장마에 가치잇든 새들이 한거나르듯 거리에는 사람의물결이 분주히 놀엇다. 더욱이나 오늘이 반공일이지만 회사며 은행과 학교…모든기관의 사람들이 쏟리러 나왓다.

인애와 순복이도 오래간만에 천고개구경을 가려고 집을떠낫다. 그리고 탑골공원앞에서 한강행전차를 잡어탓다.

전차는 종로네거리의 「커브」를 돌아가면서 속력을 주리엇다. 그틈을타서 전차속으로 뛰어들어오는 한사내가 잇엇다. 그사람은 곧 박철이엇다.

인애와 순복이는 이뜻하지안은 침입자에게 놀래엇다. 인애의 가슴은 공연히 두근거렷다. 박철도 인애를 발견하고는 자조 그의시선을인애에게로 보냇다. 참을성없는 순복이는 벌서 그의본성을 발휘하기 시작하엿다.

「애 그남자가 너를 작구만보는구나. 저것!」

「그애 참 망령일세」 전차속에서두 망신을 주러니?」

인애는 순복의말을 먹지르고 뾰족한사납을 내엿다.

두처녀는 조선은행앞에서 나렷다. 그러나 박철은 여전히앉어서 남대문쪽으로 갓다. 전차에서 나린뒤에도 순복이는 계속해서 인애를 놀려먹엇다.

「사람은 좀 대담해야한다. 시원스럽게 「러브·레터」한장쯤 쑥만한용기가 없는녀자는 현대남성이 요구치안커든…」

「옳치 남에게 배와주지말고 네가몬저 용기를내려무나. 네가 누구를 시험하는셈이냐?」

인애는 마침내 소리를 빽질넛다.

이러코보니 그들의 천고개구경은 아모조화도 흥미도 없어젓니 그들의감정은 박철을 중심에노코 어느새인지 버긋나기시작한것을 서로 인정하엿다.

그리하야 인애는 인애대로 순복이는 순복이대로마음속에 갈피가생겻다.

×

인애가 집으로 도라오는시 한시러게 심녀[illegible]

대청마루앞에서 주인을찾엇다.

「주인마나님 계십니까?」

인애어머님은 활짝에서 문을 열고나왓다.

「저어른이 주인마님이십니다」

「이 어른은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방금 개성에서 오시는길입니다」

박철은 김여사와 자기 어머님을 번가라보면서 이러케 소개햇다.

「네!-참 못뵈새 안녕하십니까 제자식놈때문에 얼마나 괴롭을 받으서요?」

「원 천만의말슴을 다하십니다 어서드러오서요. 아드님이 그리워서 오섯구먼요……참말 반갑습니다. 이제보니 아드님이 꼭 어머님의 판을찟은듯이 닮앗구려. 호호…」

업부인과 김여사는 서로 인사를주고받엇다. 인애는 박철의 어머님이 어떠케 생겻노…하는 호기심이나서 유심이보앗다.

「참 먼이 아주흡사합니다」

가 만치못하신 모양갈군요」

업부인은 외표사정을 쉬어가면서 방안을 둘러보앗다.

「애 인애야 너 이어른께 인사드려라」

「이게 뉘시오?」

「네 제딸년입니다 허허……」

「허 -거 참 양전한따님을 두셧구면요. 인물두 어쩌면 그리두 꼿송. 선녀갈두로……」

업부인은 인애의칭찬을하면서 어

寂滅 (6)
金武吉 作
洪得順 畵

갑에 박정은 [illegible] 회이자음게 [illegible] 고는 모자를 [illegible] 로 드러먼지 [illegible] 건으로 [illegible]

「이리 드러오세요, 어게 [illegible] 이렵니다」

박철은 자기의 [illegible] 중년이넘은 부인에게 [illegible] 내하엿다.

「이게 내 [illegible]

「네 그러두 꼭 [illegible]

그들은 서로 [illegible] 을 주고 받엇다. 업부인은 [illegible] 절의 어머님인 업씨엿다. 박철은 자기의 어머님이 오시는가 [illegible] 마중을 나갓든것이엇다. 그는 우선 주인부인에게 소개해드릴생각으로 안사방을 향하여갓다.

「누가 오섯니다. 어머님!」

마침 유리창으로 살며시 내다보고잇든 인애가 어머님에게 어머님께 보고하엿다.

냉증이잇스면
아혜를 배지못합니다

東京木村婦人病院院長 醫學博士 木村仁

부인병에걸니면 반드시 대하증이 생기게되니 大學病院에서 만흔환자를구원하고잇는「와세돈錠」로 고치면 자때에서도 病院파똑같은치료가되어 간단히 근치됩니다

살은實例
소탐벗고 시앗까지본 서름은 눈사러지듯 햇습니다
釜山 李■■

[illegible]

겨울이면甚하든 냉배와帶下症이 「와세돈」으로 낫다
慶州 朴■■

[illegible]

冷症이가신듯낫고 子宮까자 어든 기쁨
定州 白菊女史

[illegible]

가정에서 손쉽게 근치되는와세돈錠

[illegible]

와세돈錠로만혼자가구원하고잇는有名한病院의一部

東京	帝國大學附屬病院
東京	帝國大學附屬病院
京都	帝國大學附屬病院
九州	帝國大學附屬病院
日本	大學附屬病院
大阪	大學附屬病院
長崎	大學附屬病院
日本	赤十字社病院
東京	市立病院
大阪	府立病院
名古屋	市立病院
仙臺	市立病院
東京	市立病院
福岡	縣立病院
横濱	市立病院
横濱	市立病院
市立	病院
弘前	市立病院
大分	縣立病院
岐阜	縣立病院
台灣	赤十字病院
朝鮮	總督府醫院

약가 十二日分 一圓二十錢 廿四日分 二圓三十錢 卅六日分 三圓四十錢

부인병자에 無代進呈

北部版

"理研"金屬마그네슘工場 南浦進出과電力問題

長津江水電供給은料金難色 豫想되는今後의迂餘曲折

【鎭南浦】 리연(理研)의 금속마그네슘공장은 진남포(鎭南浦)에 설치하기로 결정되고 이미 공장부지의 매수도 끗이낫다. 동공장은 염수(鹽水)를 리용하는 전기화학공업으로서 소요전력은 최초 一만二、三천키로로 장래는 六만키로에 달할터이므로 리연측에서는 그같이 만흔 소요되는 전력공급문제에 다대한 관심을 가지고 잇다고 한다. 그러나 장진강수력전기의 야구(野口)씨는 소요전력전부를 장진강수력전기로부터 공급키는 불가능하다고 태도를 명백히 하엿으나 그후 재교섭의 결과 제一기 소요전력 一만二、三천키로의 약반분 약七천키로는 서선전기를 통하야 공급할수잇다는것이 대체로 양해되고 그남어지 六천키로는 서선전기의 화력발전기를 운전하야 공급하도록 되어 그외 준비도 진행중이라한다. 그리고 전력료금문제로 리연측에서는 총독부광산과측에서 一키로 八리정도라는 설명이 잇어 매우 만족하엿으나 장진수력전기의 전력을 사용하거나 서선화력발전을 사용하드래도 모두 一전五리정도 이하로는 곤난케될터이므로 이전력료금문제를 중심으로 리연의 진남포에 건설할 금속마그네슘공장이 실치되기까지는 아직도 우여곡절이 만흐리라고 그의 추이를 주목중이라한다.

在吉林同胞 大野遊會

【吉林】 길림조선인 동영회 주최와 본보길림지국(吉林支局) 후원으로 래월十三일 오전七시五분 일단으로 길림재류일반동포들이 한자리에 모히게 하야 대야유회를 강남공원(江南公園)내에서 개최하기로 되엿다는바 경기종목은 씨름과 주천과 기타 [illegible]

夏期衛生 座談會開催 谷山警察署에서

【谷山】 황해도곡산경찰서에서는 여름날에 대한 위생에 관하야 국민의 건강보지상 지대한 관계가 잇음을 생각하고 지난四일오후한시경부터 동서 무도장에서 강전(岡田)서장이하 관민四十여명이 회합하야 다음과 가튼 사항에 대하야 제의 방법으로 착착 실행하기로 약三시간의 좌담회가 잇엇는데 강전서장으로부터 그외에것이아니라 위생에 관하야 긴절한사항이 잇는때는 반드시 부탁의 말이 잇엇다한다.

一、石油乳劑散布方의件
二、便所改造(콘크리트製)獎勵方의件
三、飮料井戶消毒의件
四、畜犬의場內外撲殺의件
五、便所의改良에關한件
六、蠅驅除藥共同購入의件
七、家屋內外의淸潔에關한件
八、下水溝의改修의件
九、豚舍共同飼育場移轉의件

사종여유이 잇을터로 일반시민은 다수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illegible] 방편이라한다. 이환자중에는 간혹 사망자도생 [illegible] 김으로써 아동을 가진가정에서 매우 우려중에 잇다고한다.

咸南東海漁民의 貧弱한經濟狀態

咸南道當局調査結果

【咸興】 함남도 당국에서는 동해연안 十二개어업조합 소속어업자들의 작년중 어업자금 운용상황과 차입금액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운용자금이 총계 三백三十二만 八천四백二十一원의 거액에 달하엿는데 그중 자기 자금을 운용한것이 六十一만 四천八백三十一원 어업조합에서 차입한것이 二十一만 二천五백二十七원 금융조합에서 차입한것 一만七천六백三十八원 운송회사에서 차용한것이 七十三만 八천四백四十五원 개인의 고리채를 차용한것이 백七十三만 四천九백八十원으로 되어잇는 터이므로 자기 자금을 제한 나머지 二백七十一만 一천 一원씩 되는 세음이라고 한다.

	自己資金	漁業組合	金融組合	運送會社	個人借入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西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退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遮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端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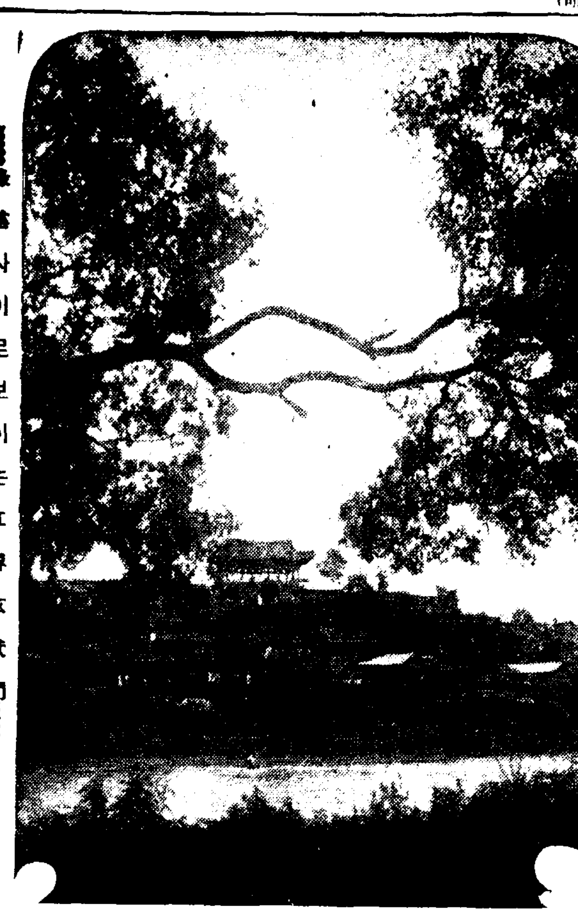
三割以上高利 百餘萬圓

이제 함남어업자들 특히 건착망(巾着網) 수조망(手繰網)등 새로운양식에의한 어업자들을 제하고도 一백七十만원의 만흔부채를 지고잇는데 그중 개인에게서 차입한것과 사입업자(仕入業者)에게서 차입한 二백七十만원의 리자관계를 살펴보면 一할미만이 十五만여원으로 五、七퍼—센트 一할이상 二할미만이 九十七만여원으로 三八、四퍼—센트、二할이상 三할미만이 四十四만여원으로 一四、二퍼—센트 三할이상 四할미만이 백十二만원으로 四一、四퍼—센트로 제一 만코 四할이상도 二백여만원에 달하야 ○、三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어민들은 고리채에 봉을 펴지못하고 차칠차칠 영락하여가는것으로 평균 三할가량이라고 하드래도 그리자만 一년에 九十만원에 달할것이라고하니 동해어민은 언제나 자기자금을 운용하야 활기잇게 작업하는 앞날이 잇을는지 자못 한심하바이다.

永興地方에 麻疹大猖獗

【永興】 영흥지방에는 지난봄부터 마진(痲疹)이 유행하야 오든바 요지음 점차 일기가 더워짐을 따라 그유행이 맹렬하야 가는데 그중에도 심한지방은 진평(鎭坪) 억기(億岐) 순영(順寧) [illegible]



綠陰사이로보이는江界玄武門

朝鮮無水酒精會社 新義州에工場設置

東拓傍系資本金五百萬圓會社

【新義州】 동척(東拓)을 중심으로 목하 공장설치를 급히하고 잇는 신의주(新義州)의 무수주정공장(無水酒精工場)은 동척의 방계사업으로 창립하고 그의 경영을 위탁하기로되어 회사창립의 준비를 급히하여왓다.

동회사는 자본금 五백만원으로 그의 二분의 一을 불입하게 될 선선무수주정주식회사(鮮鮮無水酒精株式會社)로 본사는 동경(東京) 또는 경성에 두고 사장에는 천곡영자위문(川谷幸左衛門)씨가 취임하기로되어 六월초순 동경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키로 되엇다한다.

그에설치할 기계는 독일(獨逸)로부터 구입하기로되어 이미 주문하야 명년봄에 도착될터이므로 조업이 시작되기는 명년가을로 되리라는데 그의 제조능력은 二만二천석가량으로 되리라한다.

五月中鎭南浦 鹽販賣高

【鎭南浦】 지난 五월중에 진남포 염판매수량을 전매국진남포출장소의 조사한바에 의하면 판매고 六백七十만四천四백키로 금액수는 十三만五천二백四원인바 이것을 전년 동기 판매고 七백三十五만三천五백키로 액수로는 十四만 五천十四원二十五전에 비하면 六十四만八천四백키로 액수로는 九천八백十원二十五전이 감소되엇는바 판매종별로는 一등염이 六백一만九천八백키로 二등염이 六十八만四천六백키로라고한다.

西朝鮮三道 麥作稀有의大豊

【鎭南浦】 금년도의 평북、평남、황해(黃海)三도의 맥작(麥作) 수확의 상태는 어떠한가? 진남포 『마루나』회(鎭南浦丸[illegible]會)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대서선三도의 맥작은 전례없는 대풍작으로 약四할가량의 증수를 예상하고잇는바 오직 수확기에 기후여하에 얼마 영향이 잇으리라고한다.

그리고 수확여하는 대체로 양호하다고한다.

間島在留民 農糧缺乏尤甚

【延吉】 간도재류 조선인농촌 [illegible]

西朝鮮中等庭球 寧邊農業優勝

平壤醫專主催下에

【平壤】 평양의학전문학교(平壤醫專)주최 본사평양지국 후원의 제五회 서조선중등학교정구대회(西朝鮮中等學校庭球大會)는 예정한 六월六일아침 九시반부터 十二개교선수들의 출장으로 성대히 개최되엇다. 패기를 다루는 중등학생들의 묘기는 실로 천여관중을 황홀케하는중에 작년도의 우승팀 정주오산고보(定州五山高普)와 강력광성고보(光成高普)군이 석패하고 멀리서 출전한 영변(寧邊)농업교(農校)팀이 우승으로 제五회대회는 五시十분경 대성황리에 마치엇다.

(사진은 우승한 영변농업교)

許垣氏壯擧

【瑞興】 서흥읍내 허원(許垣)씨는 작년에도 흥흥한공회당을 건축기증하야 일반이 씨의 공익심에 감탄한다함은 기보한바와같거니와 금년에 또다시 의거를 지출하야 서흥소방조에 三백원、여사석고찰인 송명사(松明寺)개축비에 三백원과 서흥공립보통학교 외기타 三곳 학교에금四백원을의연하엿는데 일반은 씨의 장거에 다시금 탄복한다고 한다.

예서는 작년이 대흉작임에도 불구하고 벌서 一개월전부터 식량이 결핍되여 속미(粟米)一석현가(現價)十八원짜리를 二十二원에 월三분이식으로 가을에 환상하기로하고 사용하는 호수가 날노 증가되어 오직 고리대부업자는 부익부(富益富)가되는 반면에 빈농호는 빈익빈(貧益貧)이되야 그들이 살아갈길은 참으로 막연한 형편에 일으럿다는데 그내용사실을 보건대 작년에 수확한 농작물은 식량할것도 남기지 못하고 모조리 파라서 흉년도 부채를 보급한 관계라는바 그중에도 자작농주민들은 더욱심하야 종자조차없서 마음대로 파종못한일까지 잇엇다한다.

假製僧侶가 洪川서詐欺行脚

婦女子被害가多數

【洪川】 요지음 유사종교단체가 만히잇어 혹세무민을 표리(表裏)로삼는 종교단체가 만타함은 이미 지상으로써 세상에 알게되엇거니와 근일 홍천지방에는 가승려가 횡행하며 인생의 최대히망인 부귀영화와 생남하게한다는 구실로 일반가정을 방문하고 부인들을 감언이설로 꾀이어 금품과 의복등속을 사취하는등 어떤 가정에서는 꼭 아들나케하여주겟다고하고 금비녀 금가락지 의복 몇벌씩을 사취하여가지고 어디로 종적을 감추엇다는 사실이잇다. 지난 五월三일부터 홍천(洪川)읍에는 자칭 수타사(壽陀寺) 중이라하는 나히 二十七、八세가량되어보이는 사나이들이 나타나 부호가정을 비롯하야 중류가정으로 돌아다니며 五월五일(五日)날을기하야 부처님앞에 등(燈)을켜올리면 부귀영화를 누릴뿐아니라 험한시절에도 신변에 재앙을 면하게 할수잇다는 허무맹랑한말이나 누구나 그말을믿는사람은 속출한바 그에수단이 교묘하다는데 그들은 신장대리(新長垈里)부호 이모(李某)집에서 현금 二十여원을 비롯하야 한모(韓某)집에서 금패물과 의복등 백여원어치를 사취하야 각가정에서 등대(燈代)로 일원내지 사오원씩 바다간것을 조사해본다면 수백원에달할 모양이라한다.

壽陀寺住持談 우리절에는그런 불량패에새로중이 와잇지안습니다. 만일우리 절에 불공드리실분이 계시다면 수타사로오시도록합니다. 일전에 누구신지는 몰나도 젊은 부인분이 오셔서 그런말씀을하시기에 우리절에는 그런중이 절대로없다고 말슴드린일까지 잇읍니다. 운운

平壤府電問題 (下)

主策없는府會 電氣統制의眞意

百年大計을생각하라

平壤特派員 郭福山

대체로 이번에 『평양부전』을 매각하려는 심사와 그에 박차(拍車)를 가한 대외력(外力)은 『국책순응(國策順應)』리론에 기인되어 잇는듯싶다.

서조선三도의 전기통제가 조선전기통제(朝鮮電氣統制)의 一단으로 되어 소화八년 서선합동전기회사의 출현을본지 만三개년이 흘러가엿어 통제권외(統制圈外)에 잇엇으나 송전회사로부터의 직접매전과 또는 자가화력발전을 선행하지못한진대 『국책순응』이란 대세에 쫓아 서선회사에 양도하자는것이 그들주장의 전폭이라 할것이다.

당시 一부 부회의원의 반대가 없엇든바는 아니로되 부영전기를 매각하려는태도로 [illegible]

상급관청

에서하는 정반에는 아니라고할수없는바로서 재작년부터문제로 상경하여서는 전기조사위원(電氣調査委員)들에게 만난 체신국장(遞信局長)의 담화를 평양부민은 아즉까지 기억에서 버리지 안엇을것이다. 체신국장의 담화는 대체로 다음과같엇다한다.

『당국은 저렴한 전기를공급할목적으로써 전기통제를 행하기로한것이고 전기사업에는 통제를 강요한가정이 없으므로 평양당국으로서는 통제를 강요하지않는다』

다만 목적을 달하고저 이회사는 [illegible] 망하는뿐이다. 『운운』

원래 정책(政策)이라는것은 일국(一國)의 국시(國是)와는 달러 시(時)와 곳(所)에 따라서 변화가잇음으로 이 정책이나 총독부당국에서 『평양부전』을 통제의 위반자로서 간주하지안는바는 정당한바이 체신국장의 담화를 十分신뢰하고 부의 한 정책이나 총독부당국에서 상가한재국책순응운운으로서 一개

영리회사

에 불을 붙이기로작정하이 어찌 목적순응에 합을바른가이며 二十만부민의 리익을 옹호하려함인가。

×

일본내지의 전력국가관리안(電力國家管理案)의 제一조에 [illegible]

든 『발전(發電)』 급송전(送電)은 정부가 이를 관장(管掌)함』 이라 하엿거니와 조선의 전기사업령이 이 정신을 떠날리 주호할 것이라하면 이미 공영(公營)十년을 경과한 『평양부전』을 一개영리회사에게 양도하기를 총독부당국 의목적이 어데까지나 三菱電氣 [illegible] 매 송전회사로서의 [illegible] 가능한바이닐것이다.

전기사업령시행규칙 [illegible] 의하여 경성전기(京城電氣)와 평양(平壤)가 [illegible]

송전회사

로부터의 직접매전을결의(決議)한 평양부회(平壤府會)의 선출의 전기조사위원은 총독부당국의 의향을 타진하고저 재작년八월에 상경하야 체신국장에게서요 [illegible]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런데 전항에서 말한바와같이

는 부당국에서 제시한 화력발전 검토안에대하야 다대한 의심을 품엇든 것도 사실이라 한다. 그러든 소화十년 九월九일 평양부회에서 만장一치로 채택한 『자가 화력발전인』의 내용은 어떠하엿든가하면 다음과 같다. 화력발전소(火力發電所)의 설치

회사의 수력전기 매전료금(賣電料金)은 一키로 一전四리五모이비하면 一키로에 二리六모의 차이를 보든 전력(電力)을 구할수잇슨 원으로 이에요할경비는 一백八十六원으로 추정되엇다.

이상에 제시한 수자적 정확성을 제외하고 오르지 상식에 비추어보드라도 평양부근의 군소회사(群小會社)에서 자가화력발전으로 수지를마추고잇음을보아 평양부전만이 화력발전에 채산이맞이 안는다함은 믿지못할 검토안이라 고할수밖에없다. 그리하여 대국적견지에서 『평양부전』의 운명을 바라볼제 평양부회의 주체(主體)없는 행동을

발전설비

로서는 六천키로발전기두대를 세워 二천만키로와트를 발전할때에는 一키로에 一전五리 三천만키로와트를 발전할때에는 一키로에 一전 一리五모로서 송전

부민전체

는 十분경계하지안을 수없는것이다.

전항에서 말한바와같이 『국책순응』이란 주장으로 말미암아 평양부전은 큰 소리를 쳐지못하고 『매각의결』로 一보 一보 접근되고잇는바 부전매각이 진정의 국책순응이아닌진대 평양二十만부민은 이를 절대반대하여어디까지나 사리(私利)를 배격하고 대평양의 백년대계와함께 평양부민의 리익을 옹호하여야 할것이다.

평양부회는 전기료금 개정으로 말미암아 배전료금하용에 급급

매전료금

은개정할수잇는바로써 미리 허둥 지둥할것이 아니다. 최근 평양부회는 전기 부채에대하야 특히 총독부당국과 평양부전의 결실인 평양부전을 매각하려하여 평양부회의 의원은 二十만부민의 의사를 타진한적이어 잇는가。 우리는 다시 생각하자 평양부전은 한두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평양부민의 납입과투쟁으로 획득한 결실이다 또 백년대계를 생각하사 창업 三十년에 엿사를가진 공영기관 『부전』을 넘기고 뒤에 도라올것은 과연 무엇일고。

(사진은 팔기로 결정한 『평양부전』의외관)

無秩序한元山市場 府當局直營을要望

個人經營은設備不完全타고

【元山】 六만여의 인구를 옹한 원산에잇어서 시장정책(市場政策)의 一대결함을 가지고잇어 원산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던지고 잇다고한다. 부내에잇는 제一어시장과 영정(榮町)시장 역전 식료품(食料品)시장의 三개소가 중요한 시장임도불구하고 전부개인의 영리경영이되여잇어 그설비의 불완전은 말할나위도없고 따라서 시장발전에대한 하등의 봉사가없어 一반시민의 불평은 자못심하다 하며 따라서 一반의요망하는바 이상三개소의시장을 부당국이 직영하야 장소를 부영조물(府營造物)로써 영리를 오로지 목적치말고 시민을위한 대중적시장을 실현시킬것이라한다.

市內貫通線路 遮斷機增設論沸騰

【元山】 원산시내를 관통(貫通)한 경원선(京元線)철로는 제一사고를만히일으키고 잇다한다. 원산—갈마(元山—葛麻)한정거사이는 四키로에 안되는 거리로 그거리는 대부분 시가지를 관통한것인데 이지점내에 철로횡단처(橫斷處)가 十一개처인데 그중 차단기(遮斷機)를 가설해논곳이 四개소밧에아니되고 그외 七개처는 아무시설이 되어잇지안타고한다. 도시정책상으로보아 타도시에비하야 시내를철도가관통하게되어 잇다는것부터 기형적인가운데 인마(人馬)와 자동차등이 교통하는 횡단처를 그대로 방관하는것은 六만부민으로하여금 불안에 떨게하는 소위라한다. 이즘에도 기차 [illegible]의 충돌로 二十三명의 중경상자를내고 철도자살사건이 속출하는데 이와같은 사실은 철도가 시내를 관통한데 대한 모순을 여실히 증명하는것이다. 일반시민의 불평하는여론을 들어본다면 「선로」를 일직선으로 남어지 九개소의 횡단처중 四、五지대에는 반듯이 『차단기』를 설치할것이라고 한다.

排水施設도 實施計劃

[illegible] 상지대경지의 보전시설로써 경작지에는 특수시설을 철저하야 농작물의 발육을 왕성케하고자 작년말까지 실행된 보수공을 한것이 八백여정보에 그시공연장이 八만五천八백여메—돌에 달하엿고 앞으로 시설할것은 하는것이 四천三백八十[illegible] 한다고하는바 이것도 [illegible]

西朝鮮의酒稅 三百七十萬圓

昭和十一年度의釀造

【平壤】 평안남북도 황해도일원 평양세무감독국관내의 소화十一년도 주류조석(酒類造石)수는 총계 二十四만二천七十八석、이에대한 세액(稅額)만이 三백九十七만二천三백五十九원에 달한다고한다. 내용은다음과같다.

▽淸酒 [illegible]
▽藥酒 [illegible]
▽燒酒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山間耕地頹廢로 保全施設을企圖

土砂의流失、地質의退化防止 咸南道當局에서着手

【咸興】 함남도당국에서는 산지대가 각군(郡)의 광대한 경지가 모든시설의 불충분으로 토사(土砂)유실 기타로 점차 토성(土性)이 퇴화하여가 농작물의 수확이 감퇴(減退)되는 현상을 그대로 방임할수없다고하야 작년부터 경사진 경지의 토사유실을 방지하고 지질의 퇴화(退化)를 막기위하야 경지의 보전시설을 행하여왓는데 작년중에 나타난 그실적으로 살펴보면 석적(石積) 지적공(芝積工) 임종(林種)등을 새로설치한것이 연장 十만五천米 五백[illegible]에 달하엿고 종보개축한 [illegible]

定平에도 脚戲、鞦韆

【興上】 함남 정평군 고산면풍봉리(定平郡高山面豐峯里)에서는 시장창설 十四년기념으로 [illegible]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주목된다.

元山第一公普 開校記念運動會

【元山】 원산제一공보교에서는 개교三十주년기념일인 지난五일에 교내운동회를 개최하여 대성황리에 끝마치엇다고한다.

永興市民運動 準備에紛忙

【永興】 영흥에 의한 당지시민운동회는 오는 六월十三、十四양일간 [illegible] 하엿다고한다.

大會準備委員 [illegible]
[illegible]部 [illegible]外二十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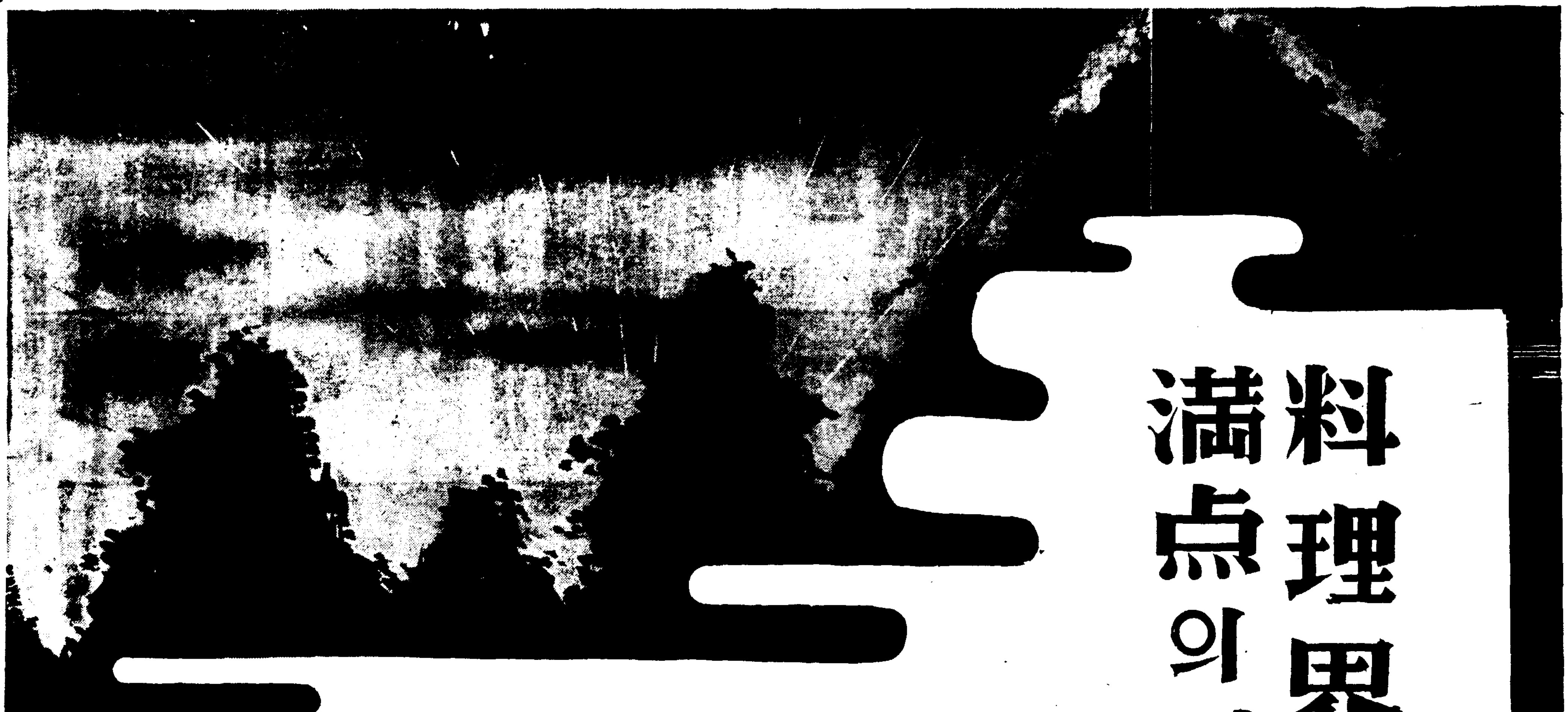
鎭南浦體育會 集會禁止

【鎭南浦】 진남포체육회(鎭南浦體育會)에서는 해마다 연중행사로 시민대운동회(市民大運動會) 각리추천대회 [illegible]

信箱

[illegible]

祝續刊



料理界에君臨
満点의써ー비스

朝鮮料理
東明館

京城府瑞麟町一一一
電話光化門③ 長一二三三番 二五三七番 三一〇二番

肺病患者의一大福音

패병、부족증、늑막염에별별약을다써도낫지안어呻吟하는患者는

肺病肋膜炎特效藥 新發見!

유-고-루

폐병은 뇌점、부속증이라하는데 독일コッホ박사가세계위대한발견을하야、천지를진동케한 결핵균(結核菌)이 폐를파먹음(蠶食)으로 생기는무서운 전염병(傳染病)인바 폐병환자의 날을 현미경으로검사하면 이상어만개의 결핵균이있다。內務省統計에依하면 일년간에 약오십만명(約五十萬名)이 폐병으로 신음하야 그중에십칠만명(約十七萬名)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무서운병이다。폐병에 걸려도 초기(初期)는 잠복성(潛伏性)이 미만하야 여간 집중키 어려우나 보는 신경쇠약이나、위장병으로알기쉬워。이와가치 부식중에 상태폐병균가치 여러가지증세 [illegible]

潛伏性結核、初期結核은 어더한病狀을 나타내는가

- 發熱 아침부터 午前中은 平熱로 午後로 夕陽에이르러 每日 三十七度二三分의 發熱이난다
- 脈膊 普通健康人의脈膊은 一分間 七十二前後인데 肺病은 八十九乃至百이된다
- 食慾減退 口味가없고 胃加答兒의病狀이된다 [illegible] 夜間에 盜汗이난다
- 體重의變化 別로 몸에異狀이없는데 몸이 羸瘦하여가고 體重이減少된다 顏色이 蒼白하여진다。
- 咳嗽와喀痰 朝起時나 就寢時에 輕한 기침이나고 또는 不安한 乾咳가난다。痰이 나오지안는수도잇고 透明한 粘液性이나 膿性도 나오고하여 一定치안다。時時로는 血液이 混入되고、喀血은 突然吐血하되 色은 鮮紅이고 泡沫이混入되여잇다。
- 倦怠 少壯強健한者가 何等原因없이 身體가疲勞하고 조곰한 動作運動에도 疲勞를感하고 [illegible] 몸이되곤하다。
- 月經閉止 婦人은 月經前後原因없이 急히 [illegible]하고 月經이 不順하고 半個月乃至七八個月閉止된다。
- 頭痛、胸痛、肩痛、四肢痛等 千差萬別의 症狀이나는데 他人이 저사람은 肺가 나뻣는가하고 말하는때는 발서 病이 如十進行하야 病의 治療치아느면 到底히 恢復치못한다。肺病이라 判明이 되자마자 곳 죽는사람도잇고 오래끄는 사람도잇다。

治療用으로

肺病患者의게、유-고-루를 連續服藥케하면 肺病에對한 抵抗力을 增大하고 咳嗽를 除去하고 [illegible] 進行을 增加盜汗及喀痰의 量을輕減하고 漸次 病症의 全快에 强力한 作用을하고

豫防用으로

體質上 肺病感染의 不安이잇는 [illegible] 初期의 病心이잇는 患者의게 服用케하면 [illegible] 不安한 症狀을 一掃하야 豫防의 偉效가잇습니다

治肺高貴藥 유-고-루는 가장 適切한 藥物療法으로 當社가 多年間苦心研究의結果 創製한 高貴藥을配合하엿으므로 胃에서는 그다지 甚한變化가없고 腸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徐徐히 分解되여 有效成分은 [illegible] 作用하는同時 腸管으로 吸收되여 體內의 結核菌에對하야 强力한 殺菌作用을 하는것으로 長期間連續服用하여도 何等弊害가없을뿐더러 도리혀 結核性體質者에게 잇기쉬운 消化器障害를除去하야 食慾을增進케하는 獨特한 作用이잇습니다。

肺病高貴藥 유-고-루本舖 京城府苑南町一一七 有恒社藥品部 振替京城七九五六・電光一四三〇

藥價 重症用 貳拾圓 輕症用 拾圓 試用 五圓

유고루로更生하라 原名YUKOL

淋疾根治藥新發明!

日東淋藥 (일동림약)

有名한독일ナイセル박사가실험한결과에

일동림약으로 急慢惡性 림질에대하야 증을완치하오

本劑가發明되여販賣하게되자 醫學界專門諸大家는勿論이고淋疾患者들부터이것이稀代의高價治淋藥이라고 [illegible] 對的信用을가지고 [illegible] 本劑의效力을 [illegible] 남녀림질에하증에한번걸리면여간낫기어려워다 그치료법과약이수천가지가되나 [illegible] 고통은물론이나 [illegible] 一、수십년된악성고질이나、재발한완고한성림질에 [illegible] 요도염、자궁관요염、뇨도협착등이졋거젓거낫는약이오。

前代未聞의强腎秘藥

腎氣發動・早老防備에
元力旺盛・精神明朗에
陰陽雙補・體重增加에

强腎丸

此秘藥은 [illegible] 少年이여、[illegible] 先天的不足의 [illegible] 健康한男女라도 [illegible] 하야人生의興味가津津케될것이다

藥價 强力用一劑 拾圓、重症用 九圓

發賣元 京城府苑南町一一七 有恒社藥品部 振替京城七九五六 電光一四三〇番

月經不調 受胎不能에 仙藥

調經補胎丸

「調經補胎丸」은 부인월경을조제하며 경도를고르게할뿐안이라 [illegible]

- ▲시시로머리가압흐고 [illegible]
- ▲경도가되라할때에나경도중에 [illegible]
- ▲배속에서무상통치가돌고 [illegible]
- ▲입상순빛이얄기통잡히고 [illegible]
- ▲하초가습하고코가론무엇이흘너나오고 [illegible]
- △태중이면입덧이심하고 [illegible]
- △자궁병子宮病은여러가지증세가있는데 모다調經補胎丸이제일이옵니다

藥價 一劑 七圓

京城府苑南町一一七番 有恒社藥品部 振替京城七九五六 電光一四三〇番

有利投資案內

—區域制度의有利事業을優先把握하라—

本社藥品部에서 發賣하는効果本位의藥品은 服藥家로부터藥効가卓越하다고 感謝狀이 每日遝至하나이다 然이나 遼隔한地方服藥家로서는 直接本社와去來함에는 時日과送料의 [illegible] 不便하니 地方服藥 [illegible] 全鮮十三道에道支店、郡代理店、面特約店을 設置하오니 優先申入하시옵소서。九大名藥은定價가自一圓으로 至二十圓까지의高貴藥임으로 面特約店이라도 販賣成績如何에依하야는 月收入貳百圓은容易합니다 무엇보다도 藥効가 優良하야 江湖의愛用服藥家를가지고 絶對支持를밧고잇는本社임으로 各地에散在한 七百八拾의 [illegible] 本社의藥品을 一層擴大強化식히는 意味로 特約店을 各新聞紙上에發表함은勿論特約店看板 藥名廣告及廣告紙를 無代提供하오니 特約店은別로 手苦를하지안코도 豊厚한販賣高를 보게되오니 健實히將來를保證하는低金利時代의有利事業이옵시다 詳細는特約手續規則을 申込하시면 特約規定書를送呈하야 親切히指導하오니 即時申込하시옵소서。

有恒社藥品部

京城府苑南町一一七

振替口座京城七九五六番 電話光一四三〇番

南京虫殺滅에强力作用

當社가研究한結果完成된効力偉大使用簡易價格低廉의三要素를具備한南京虫의理想的撲滅藥 이외다

デリス根劑 効果的確

農光殺虫劑

定價 小 中 大 [illegible]

市內有名藥店에서販賣함

特約販賣店募集

代代子孫의生命까지 빼앗는무서운梅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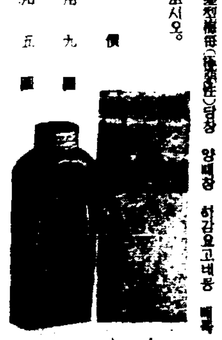
梅毒(매독)은 도구도루丸으로 根治하라

一二三期梅毒 狼瘡下疳橫痃

독일ホフマン박사가 發見한梅毒菌에特效

果然全快感謝狀이雪飛!

매독은창병、당창이라고도하야 코나 살이떠러지는 무서운 전염병인데 부모나 선조에게 매독이잇어서 그병이자손에게 유전(遺傳)이되야 생기는것을 선천매독이라하며 남자가 화류계여자와게 전염하야 가정부인에게까지 전염시키니 이것을 후천매독이라합니다。[illegible] 그다지 고통치안음으로 그대로두는분이 있지마는 이것이 영구히 매독으로 고생하는 큰원인으로 그동안몸속은 병균이 활동하야 피부나、근육이나、내장신경등골을 물론하고 사람의 어느곳이던지 세여먹는 참 무서운병이다。어떤때 외례히 육공육호를차조나 일시적이지 다시 재발하는것은 경험한 환자가 더욱 잘아는일이며 유명한 독일박사도 육공육호를 발표한환자에게 실험한결과 매독의 재발을 절대로 막지못하엿다고하엿다。매독에는 조기、이기、삼기、가잇는데 육공육호나 사약 수은등 별법으로 근치안되고 재발하야 고통하는환자 하로밧비 유명한 [illegible] 구도후환을쓰시오 부부간 한사람에게 매독이잇으면 양인이모다 약을쓰는것이 제일안심되오 매독은 자기몸만아니라 독이자손에게까지 유전한다는것을 생각하시오 코가[illegible] 주시고 붉고、목이잠기고 눈이희미하고、머리가빠지고、팔다리가쑤시고 머리속이허러 부스럼나고、몸의 여기저기 가터지고 국부에 부스럼이나거나 헐고가렵고 [illegible] 당창 양매창 하감 [illegible] 일절에꼭쓰시오。



藥價 重症用 九圓 輕症用 五圓 試用 參圓

發賣元 京城府苑南町一一七 有恒社藥品部 振替京城七九五六・電光一四三〇

ClibPDF - www.fastio.com

學藝

苦難의 教訓 (上)
(時)(感) 韓雪野

사람이 自己의 一生을 大過없이 지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文人

그의

勿論

實로

文壇打診即問即答記

레알리즘以後에는 浪漫主義가 擡頭?
作家評家의 不和는 作家의 責任

(第五回) 白鐵

白鐵

少犯飢

(雪林)

科學

溫度이야기
여름科學
鞠採表

◇氣溫◇

日本 全國에서 가장 더운 곳은 …

◇人工의 最高低溫度는◇

◇별의 溫度◇

最 · 溫 · 零 · 그 · 더

一石
讀書評論
鬱憤! 李熙昇

新刊紹介

▲우리말본(최현배지음) 定價十圓 發行所京城府延禧專門學校出版部 振替京城八七六一番

▲朝鮮文學 六月號 發行所 京城府 振替京城二四六八八番

東西南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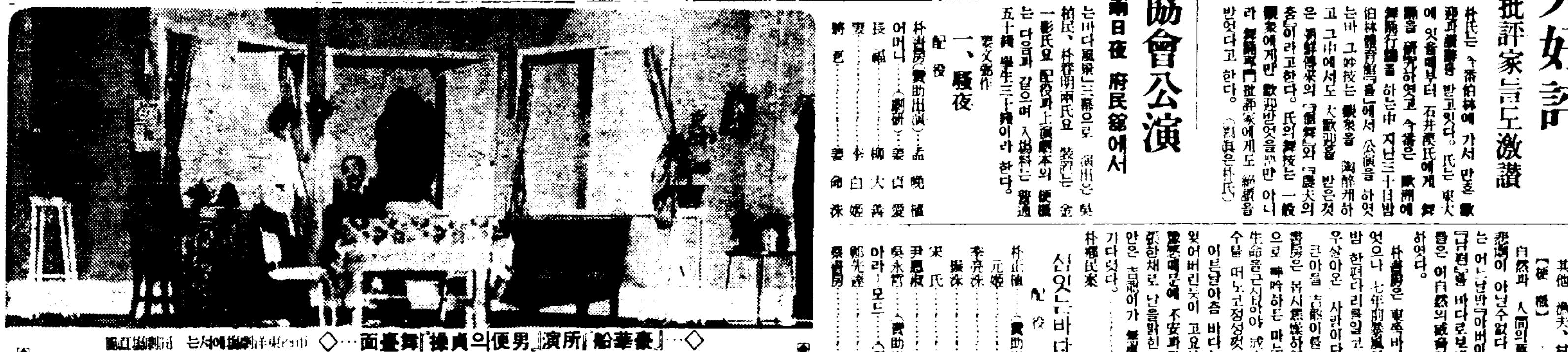
朴永仁氏舞踊 伯林서 大好評
專門批評家들도 激讚

朝鮮舞踊家로서 崔承喜氏가 …

朝鮮演劇協會公演
六月八、九兩日夜 府民館에서

一、騷夜
싣어가는바다風景
配役

◇…豪華船『演所』舞臺面『操貞의便男』…◇



演藝와娛樂

(演)(藝)(消)(息)

新映畫
天使의花園
듸아나·다-빈主演

리디오

六月八日(火) 第二放送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十時三十分 氣象通報
▼正午(東) 時報、日用品時勢
▼午後零時五分(東) 토-키-音樂
▼零時四十分 뉴-스
▼一時十五分 婦人時間
▼四時二十分 野球試合實況(京城)
▼六時三十分 兒童時間
▼七時 ...
▼七時三十分 뉴-스
▼八時(平) 歌謠
▼八時三十分(平) 一、나니가라 二、갈매기 三、
▼八時五十分(平) 歌謠曲

第一放送

▼十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九時三十分(東) 時報、뉴-스

六月九日(水) 第二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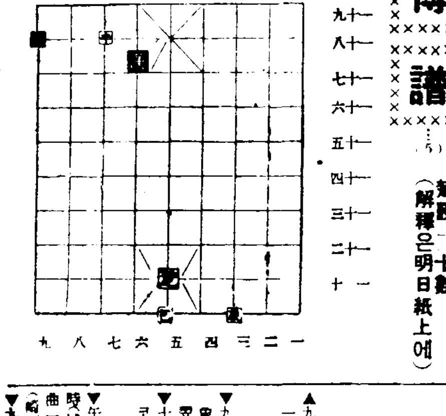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十時卅分 氣象通報、料理獻立
▼零時五分 花歌四百題外
▼正午(東) 時報、日用品時勢
▼零時四十分 뉴-스
▼一時十五分 스-三-全講座
▼四時 뉴-스
▼四時三十分 野球試合實況(京城)
▼六時 (東) 講演
▼六時三十分 兒童時間
▼七時 浪曲
▼七時五十五分 어린이時間
▼八時 趣味講座
▼八時三十分 라디오드라마
▼九時 歌謠

第一放送

▼十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레코-드音樂(京城)

博譜
楚勝、二十數 (解釋은明日紙上에)

出微入妙 其三



明日의鋪道 (4)
李無影 作
安夕影 畫

三代의約婚 (一)